인류가 창조한 '자연', 글자 그리고 글자풍경

『글자풍경』을 읽고 알았다. 글자는 인류가 창조해낸 '자연'이라는 걸. 물과 나무, 새와 바람, 꽃과 구름처럼 우리 주위에 흩어져 피어나고 자라고 사라졌다 다시 채워지고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자연과 더불어 풍경을 만들어내는 글자가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공평하게 쓰이길 바라는 유지원 작가를 만났다.

글 이재영 **사진** 최충식

우리는 읽고 쓰는 행위를 아주 어려서부터 하면서도 글자에 대해 무심하죠. 공기처럼 당연하고 흔한 것이었는데 『글자풍경』을 통해 글자의 존재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오래 알던 사람과 비로소 통성명한 기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글자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공기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죠. 언어화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개발 붐이 일던 80년대에도 먼지가 가득했지만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수치화되지 않고 체계도 없었죠. 이제 모두 아침에 눈을 뜨면 미세먼지를 확인해요. 실체를 가지게 된 거죠. 글자도 언어화를 통한 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글자는 정말 우리와 밀접하게 닿아 있는 존재니까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지식들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교감하지 못하고 지나친 풍경 속 글자들이 아쉽더라고요.

시대마다 지역마다 저마다의 글자가 있죠. 그리고 그 자체로 풍경을 만들어내고요. 같은 로마자를 쓰더라도 알프스 북쪽과 남쪽이 달라요. 풍토가 달라지면 글자들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미얀마의 말라얄람 문자를 보면 참 예쁘다고 생각해요. 글자들이 대부분 동글동글하거든요. 동남아시아 사람들 심성이 둥글어서 그런가 싶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들은 야자수 잎을 종이로 만들어 대신 썼어요. 잎의 결을 찢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니까 뾰족한 것보다 둥근 모양을 많이 사용한 거예요. 세계 각국의 글자들을 가만히 보면 그지역의 특징들이 보여요. 지역성만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그 외에도 사람을 살리는 글자체에 대한 이야기나, 글자 크기에 따른 장단점,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 구텐베르크와 세종대왕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글자와 관련된 단행본 제의를 2005년부터 받았는데, 잉태에서 탄생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책에도 썼지만 사람뿐 아니라 책도 운명을 입고 태어나요. 우리 사회는 느림의 가치에 대한 관용이 무척 낮은데 꼭 서둘러야 좋은 건 아니거든요. 첫 책을 조급한 마음

『글자풍경』 유지원 작가

으로 내고 싶지 않았어요. 무작정 미뤄 놓은 게 아니라 충분히 숙성시켰죠. 15년 동안 지식을 축적하고 책을 쓰기 위한 다양한 소통을 했어요. 신문 칼럼 연재도 하고요. 세상에 책이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의미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나에게 중요한 세부분야가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많이 가졌어요. 강연이나 대화를 통해 비전공자들의 질문에 귀 기울였죠.

일반적으로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논의하거나 고민할 기회가 거의 없죠. 대중들에게 친숙한 듯하면서도 낯선 개념이에요. 잘못하면 학술지처럼 지루할 수 있는데 『글자풍경』의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보다 재미있어요.

분야와 분야가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타이포그래피 분야'의 파이를 넓히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글자 존재의 가치'가 확산되길 바랐죠. 다른 분야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뜻밖의 해결책이 되는 연결고리였으면 해서 더 신중하고 천천히 진행했어요. 사회 전반에 그 분야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해요. 한두 사람 깊이 있는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잔잔한 감수성이 확보되길 바라거든요. 사회의 변화는 소수의 몇 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독일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경우 사회에 형광등처럼 불이 환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독일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어두워지면서 한국에 오면 깜깜해져요. 아무것도 없진 않아요. 알전구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어요. 개인의 역량 차이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건 사회 전체에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흘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알전구의 힘만으로 전체 사회가 밝아지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글자풍경』이 알전구에서 좀 더 밝은 조명으로 옮겨 가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어요. 출간 후 독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 책이 어떤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으면 하시나요?

책을 읽고 나서 여행을 다녀오니, 글자들의 이야기와 사연들이 더 잘 보이더라는 여행담을 많이 말씀해주세요.

> 저는 '연결'에 관심이 많습니다.
> 특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에요.
> 그것을 글자를 통해
> 즐겁고 효과적으로 했으면 해요.
> 연결되려는 인류의 의지는
> 정말 경이로운 것이잖아요.

지인 중 한 분은 『글자풍경』을 읽고 스마트폰 기본 폰트를 바꿔보았다고 해요. 필기체 계열의 예쁜 폰트로 변경했더니 특히 시계 설정에서 초가 변할 때마다 숫자들이 울렁울렁 춤을 추어서, 결국 왜 현재의 정적이고 안정감 높으면서 기능적인 폰트가 기본으로 세팅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책을 읽은 후 주변의 글자들이 아름답고 재미있게 여겨진다는 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 유용함을 생산해낸 창작자들의 노고를 비로소 알게 됐다고도 하세요. 저자 입장에서 무엇보다 독자분들의 일상이 글자들의 사연에 귀 기울이며 풍요로워졌다는 게 제일 반가운 이야기예요.

『글자풍경』을 읽고 나면 주변의 글자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여요. 처음으로 고속도로에서 이정표와 표지판을 제대로 살폈어요. 저 단정한 글자체가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라고 안도하면서요. 자꾸 글자와 친한 척을 하게 되네요. 실생활에서도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독자뿐 아니라 저 역시 독자들을 통해 연구에 영감을 받기도해요. 한가지 예로, 물리교육 연구자인 최성연 선생님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왼손으로 글씨를 쓰셨다고 해요. 거울 반사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우대칭을 바꾸어 쓰기도 하구요. 그분 어머님이 두 살 터울 오빠를 마주보고 앉아서 그걸 따라 그리듯이 글자를 익혀서 그런 습관이 만들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랍니

다. 그 얘기를 들으니 처음 글자를 배울 때 형제자매 남매가 나란히 앉느냐 마주보고 앉느냐의 관계 설정이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위 연배를 잘 따르는 아래 연배 동기 쪽이 더 큰 영향을 받겠구나, 싶었고요. 이렇게 개인의 일상사 속 사례들을 피드백 받은 덕에, 제가 직접 겪기 어려운 사례들이 쌓이고 있기도 합니다.

글자를 다시 보게 해 준 지식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글자에 새겨진 인문적 지혜가 무척 와 닿았어요. 특히 책을 관통하는 잉여의 가치와 여유의 가치, 다름의 가치에 대한 강조가 흥미로웠습니다. 유지원은 어떤 가치관을 지닌 타이포그래퍼인가요?

저는 '연결'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에요. 그것을 글자를 통해 즐겁고 효과적으로 했으면 해요. 연결되려는 인류의 의지는 정말 경이로운 것이잖아요. 사회성의 모태가 되는 그 의지 덕에 소통하면서 지구에 살아남았죠. 언어도 글자도 그런 연결을 위한 도구이고요. 스마트폰도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당장의 일상을 친구와 공유할 수 있어요. 이 대단한 연결의지를 건강한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게 타이포그래피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강요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산골마을 촌로(村老)에게까지 자연스럽게 가서 스미는 글자. 속속들이 촘촘하게 스며서 누구나 참여하게끔 글자로 연결하는 사람이었으면 해요.

초등학교 교과서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는 그는 어린이들도 자신의 신체 발달에 맞는 글자체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을 배려하는 처사가 큰 글자를 쓰는 것 뿐이에요. 신체 발달이나 노화에 맞춘 다양한 연구와 고민이 병행되어야죠."

소수의 권력이 아닌 다수의 행복이 되는,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는 글자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글자를 잘 알면 시대를 이해하게 된다는 유지원 작가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라도 오늘의 글자 풍경을 지나치지 말아야겠다.